

제5편 산업경제

제1장 농업·축산·임업

제2장 광업·공업

제3장 수산업

제4장 해운항만업

제5장 상업·금융업

제1장 농업 · 축산 · 임업

제1절 농업

1. 농가 및 농가인구

1) 농업정책의 변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식량이며,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원료를 투입하면 즉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식량안보차원과 자연환경 보호 측면, 그리고 1960년~70년대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촌출신임을 감안하면 정서적인 면에서도 농업의 근간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위도 상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도작하기에는 기온 상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도작기에 강우량이 풍부하고 성숙기에 일조량이 충분하여 우리의 주식인 미곡생산지로서는 적지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는 농업경제 문화의 개화단계로 수전, 한전, 화전의 분화된 농경방식이 이루어졌으며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원칙으로 하여 씨족공동체적 토지소유를 채택하였다. 고려왕조에 이르러서는 토지를 사전과 공전으로 나누었으며 사전은 문무백관에게 지급되고 공전은 국가가 직접관리 하였다.

조선왕조에 와서는 토지의 사유화를 최대한 제한시켜 경기도 지방에만 과전(科田)이라는 토지제도를 도입 사전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방은 국유화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중앙의 통치권이 약화됨에 따라 사전이 확대되었으며 대부분 권문호족들이 농경지를 지배하였다.

일제강점기는 한반도를 그들의 전쟁 식량기지화를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가혹한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우리나라 농업을 영세화와 농민의 몰락화를 초래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식량수탈을 위해 농작물의 품종선택, 재배방법의 개선, 농업기술 등을 보급했지만 일본 본

토의 식량 공급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나라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전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해방 후 농지개혁이 1948년 미군정과 1950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졌고 1960년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시멘트, 비료, 철강 등의 공장이 설립되면서 농업부문도 생산력증대에 따라 농가소득이 상승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개혁, 환경개선, 생산기반 정비와 유통구조개선,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복합영농정책으로 주곡 이외의 고소득 작물, 특용작물 재배, 축산물을 복합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을 계기로 농업정책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책의 기초가 전환되기 시작하여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 되었다.

1995년 WTO 출범에 의해 농산물 수입개방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되면서 쌀시장개방은 2014년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쌀 생산량은 1960년대 1단보 당 300kg에서 2000년 500kg로 증대되었으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그 처리문제가 매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쌀 자급률은 96.5%이고 전체 양곡 자급률은 26.8%이다.

그러므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전업농 육성의 어려움 등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가 있으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 자급자족의 일정 비율 유지에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하고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 과학도시를 표명하는 포항도 농업의 일정부분의 역할과 중요성을 경제성에 따르지 말고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농가인구의 변화

포항지역 농가인구는 1945년 이후 증가해 오다가 1966년 2,533가구에 농업 인구수 14,993명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1968년 포스코 창설과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농업인구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영일군의 경우는 1964년 총인구 210,278명에 가구수는 34,839호인데 그중 농업인구는 161,170명이고 농가수로는 25,158가구로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는 76.6%, 가구수로는 72.2%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영일군은 포항시의 공업화에 따른 산업인력 흡수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80년에는 전체인구 197,642명에 가구수는 44,022호로 총인구에 대비 농가인

구는 52%, 농가구수는 4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인구 비중이 높지만 포항시와 대도시의 인구 흡입에 따라 젊은이들은 생업의 터전을 옮기고 농가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관련 철강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심 주변의 논밭이 거의 주거지와 공업지 등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인구와 농가구수도 감소하여 1993년에는 농가구수가 654호에 농업인구 2,76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후 1995년 영일군과 포항이 통합되면서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 51만 명 중 약 6.4% 정도인 3만 4천 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포항시 총인구 508,684명 중 농가인구는 32,667명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이 숫자는 계속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농업인구의 증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인구 및 농가인구

(단위 : 년, 명)

구분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B/A)
	계(A)	남	여	계(A)	남	여	
2002	513,424	262,825	252,599	-	-	-	-
2003	510,414	259,349	251,065	33,110	15,807	17,303	6.5%
2004	508,937	258,761	250,176	53,130	27,266	25,864	10.4%
2005	507,052	257,849	249,203	35,673	17,493	18,184	7%
2006	507,674	258,701	248,973	34,144	16,465	17,679	6.7%
2007	508,684	259,226	249,458	32,667	15,746	16,921	6.4%

농가 및 농가 인구

(단위 : 호, 명)

연 별	농 가				농 가 인 구		
	계	전업	겸 업		계	남	여
			1종겸업	2종겸업			
2004	17,069	7,421	2,934	6,714	53,130	27,266	25,864
2005	13,465	7,609	1,420	4,436	35,677	17,493	18,184
2006	13,393	8,444	1,520	3,429	34,144	16,465	17,679
2007	12,941	8,457	1,530	2,954	32,667	15,746	16,921

2. 경지면적 및 정리 현황

1) 경지면적의 변화

포항시의 경지면적은 1961년 총 경지면적 11,192정보로 이중 논은 8,039정보, 밭은 3,153 정보로 논과 밭의 비율은 78.2% 대 21.8%를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전국 평균 56% 대 44% 비율과 비교하면 포항시의 논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지면적만 보면 당시 경북도내 27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한 최하위인 26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도시 발달로 경작지가 용도 변경된 것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경지면적의 일시적인 증가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경작지가 편입된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경지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영일군의 경우 1961년 총 경지면적이 188,896정보로 이중 논은 109,457정보, 밭은 79,439정보로 논과 밭의 비율이 57.9%대 42%이다.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한 포항시의 총 농경지 16,530ha 중 논은 10,426ha, 밭은 6,104ha로 그 비율을 보면 63%대 37%로 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일군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1988년 90.7ha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1993년에 108ha로 증가하였고, 논은 1988년 60.5ha에서 1993년 74ha로, 밭은 30.2ha에서 34ha로 증가했다.

포항의 경우는 1997년 경지면적은 총 18,219ha로 그중 논은 11,659ha, 밭은 6,560ha이나 가구당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어 논은 0.53ha, 밭은 0.3ha로 농가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통계를 보면 호당 농가인구는 2.5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호당 경지면적은 1.40ha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구 분	농가호수 (a)	농가인구 (b)	호당농가인구 (b/a)	경지면적(ha) (c)	호당경지면적 (c/a)
2002	12,940	-	-	15,318	1.18
2003	13,328	33,110	2.46	15,293	1.14
2004	17,069	53,130	3.11	18,390	1.08
2005	13,465	35,677	2.64	15,076	1.12
2006	13,393	34,144	2.55	14,944	1.12
2007	12,941	32,667	2.52	18,087	1.40

경지면적

(단위 : ha)

연 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밭
2004	18,390	11,436	6,955	108.0	67.0	41.0
2005	15,076	10,240	4,836	116.0	76.0	40.0
2006	14,944	10,150	4,794	146.9	93.1	53.8
2007	18,087	11,218	6,869	145.2	92.2	53.0

토지 이용현황

(단위 : ha, %)

구 분	전체 토지면적 (A)	농경지			임야	기타	경지비율 (B/A)
		계(B)	논	밭			
2002	112,769	15,318	10,313	5,005	80,082	17,369	13.5%
2003	112,771	18,429	11,459	6,970	80,060	14,282	16.3%
2004	112,774	18,390	11,435	6,995	80,013	14,371	15.3%
2005	112,774	15,076	10,240	4,836	79,912	17,786	13.4%
2006	112,787	14,944	10,150	4,794	79,615	18,228	13.2%
2007	112,787	18,087	11,218	6,869	79,615	15,085	16.0%

2) 경지정리 현황

경지정리 현황

(단위: ha)

연 도	총 면 적			실 적		잔면적
	계	가 능	불가능	면적	비율(%)	
2001	10,316	7,379	2,937	5,868	79.5	1,511
2002	10,313	7,379	2,934	5,868	79.5	1,511
2003	10,313	7,379	2,934	5,868	79.5	1,511
2004	10,313	7,379	2,934	5,868	79.5	1,511
2005	10,240	5,472	4,768	5,432	99.3	40
2006	10,240	5,472	4,768	5,432	99.3	40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가능한 면적 7,379ha 중 경지정리가 5,868ha 이루어져 79.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2004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05년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이 5,472ha로 감소되면서 실적 면적이 5,432ha로 역시 면적은 줄어들었으나 실적 비율은 99.3%로 가능한 면적은 거의 경지정리가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산물 생산

1) 식량작물 생산량

구분	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2002	48,923	45,030	557	169	956	2,211
2003	39,892	36,663	447	137	730	1,915
2004	48,628	45,107	497	139	950	1,935
2005	47,814	44,360	416	136	933	1,969
2006	45,607	42,142	378	146	883	2,058
2007	45,696	41,757	318	150	852	2,619

(1) 미곡

쌀은 우리나라 식생활의 주식이다. 전체 식량 자급률을 보면 1965년 93.9%였으나 2000년 29.7%, 2001년 31.1%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4년 26.8%로 현재 27%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촌의 인구구조가 노령 급속 진전으로 휴경지가 발생하고, 농산물 무역자유화 등으로 식량 자급률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식량 자급률은 낮지만 식생활의 고급화, 먹거리의 다양화 등에 따라 쌀의 소비량은 2003년 1인당 83.2kg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쌀의 자급률은 2004년 96.5%로 잉여 양곡관리와 추매 수가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곡 생산량을 보면 2002년 전체 식량작물 48,923M/T 중 45,030M/T를 생산하여 그 비율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미곡 생산량이 전체 식량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 내외로 포함지역은 미곡중심의 농사를 짓고 있다.

(2) 맥류

맥류는 걸보리, 쌀보리, 호밀, 매주보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포함지방은 주로 걸보리를 재배하고 있다. 맥류는 국내소비의 감소와 채산성의 악화로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1980년 영일군의 경우 맥류 재배면적 3,545.3ha에 생산량 9,585.5M/T인 때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해마다 경지면적과 생산량이 줄고 있다.

통합 후의 경지면적은 더욱 줄어서 1997년에는 217.7ha에 생산량 558M/T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이후 2002년 557M/T, 2003년 447M/T, 2004년 497M/T, 2005년 416M/T로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2006년 378M/T, 2007년 318M/T로 연간 생산량 300M/T도 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수요가 공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잡곡

잡곡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쌀과 보리에 이어 식량작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미곡생산은 어느 정도 일정한 생산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잡곡의 2002년 169M/T 생산 이후 감소되어 오다가 2006년 146M/T로 증가되어 2007년 150M/T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포함시는 주로 수수와 옥수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생산량 증가는 잡곡을 넣은 혼식이 건강에 좋다는 개념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두류

두류는 콩·팥·녹두 같은 농산물로 이 역시 혼식이나 다른 식품에 함께 사용되는 작물이다. 두류는 1980년대 중반부터 경지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며 1990년에는 경지면적 1,928.2ha에 생산량은 3,387.3M/T로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후 2002년 956M/T생산을 정점으로 2003년 730M/T로 줄어들었으나 2004년부터 다시 950M/T 전후로 생산하였고 2006년 이후는 조금 감소하여 2007년 852M/T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팥, 콩의 국내 수요의 상당량이 중국 농산물로 대체되는 것이 생산증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서류

서류는 감자, 고구마 같은 작물로 보조식량 혹은 간식용, 부식용으로 재배해 왔으나 미곡을 제외한 다른 작물 보다는 과거 생산량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서류의 경지면적과 생산량은 1993년 11.3ha에 180.6M/T이고 영일군은 1992년 경지면적 144ha에 생산량은 2,433M/T, 1993년 118.3ha에 생산량 1,980.6M/T로 감소했다.

그러나 통합 후 2002년 2,211M/T 생산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06년

2,058M/T, 2007년 2,619M/T로 다시 서류의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서류는 전체 식량자원 중 자급률이 2004년 97.1%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소비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채소류 생산량

채소류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2002	1,448.2	135.4	644.4	129.7	538.7
2003	1,444.2	123.2	621.2	144.6	555.2
2004	1,444.5	123.4	641.3	153.9	503.9
2005	1,323	104.3	582.1	147.0	489.4
2006	1,463.9	100.5	696.3	143.2	523.9
2007	1,377	120.2	703.1	87.4	466.3

채소류 생산량

(단위 : M/T)

구분	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2002	33,610	3,807	21,179	5,315	3,308
2003	33,432	4,329	20,476	5,645	2,982
2004	32,416.6	3,925.3	19,997.5	5,766.9	2,726.9
2005	29,791.8	3,057.6	18,669.9	5,490.3	2,574
2006	32,463.3	3,194.2	19,917.3	6,096.5	3,050.9
2007	29,820.2	3,194.2	18,152.2	2,908.0	2,541.0

(1) 과채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같은 작물로 2002년 재배면적은 135.4ha, 생산량은 3,807M/T이나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07년 재배면적은 120.2ha, 생산량은 3,194M/T으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2) 엽채류

배추, 시금치, 양배추, 상추, 미나리 같은 작물로 2002년 재배면적은 644.4ha, 생산량은 21,179M/T이었으나 2004년 재배면적은 641.3ha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생산량은 19,997M/T로 획기적으로 향상 되면서 그 후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2007년 재배면적은 703.1ha, 생산량은 18,152.2M/T로 증가하여 유지하고 있다.

(3) 근채류

무, 당근, 가지, 우엉, 토란 같은 작물로 2002년 재배면적은 129.7ha, 생산량은 5,315M/T로 다른 채소류의 경작면적에 생산량은 많은 편이다.

2006년까지는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140ha 이상 유지하고 생산량도 2006년 6,096.5M/T를 정점으로 2007년 재배면적은 87.4ha로 급감하고 생산량은 2,908M/T로 감소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4) 조미채소류

고추, 파, 마늘, 양파, 생강 같은 작물로 주로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 재배면적은 538.7ha, 생산량은 3,308M/T이었으나, 그 후 몇 년간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7년 466.3ha로 다소 줄어들었고,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오다가 2007년 2,541M/T로 다소 줄어들었다. 우리지방의 채소류 생산량을 보면 부추가 8,323M/T로 제일 많고 고추가 316.7M/T로 그 다음 순이며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16,774M/T를 생산하여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특용작물 생산량

참깨, 들깨, 땅콩 같은 특용작물은 채소류나 식량작물에 비하면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미약하다. 비록 경제성 있는 작물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중국산 수입 농산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들깨나, 땅콩 같은 작물은 거의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2002년 이들 생산량을 보면 참깨 38M/T, 들깨 11.6M/T, 땅콩 3.2M/T에서 2007년 참깨 26.2M/T, 들깨 1.9M/T, 땅콩 1.2M/T를 생산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특용작물 재배의 장려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이 국산품을 믿고 찾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경작자와 소비자에게 상호이익이 될 것이다.

특용작물 재배면적

(단위 : ha)

구 분	계	참깨	들깨	땅콩
2002	84.7	62.2	-	2.1
2003	84.3	62.1	20.2	2.0
2004	63.7	45.2	16.4	2.1
2005	68	50.5	15.3	2.2
2006	51.8	47.7	3.10	1.3
2007	52.2	47.9	30	1.3

특용작물 생산량

(단위 : M/T)

구분	계	참깨	들깨	땅콩
2002	52.8	38.0	11.6	3.2
2003	51.9	37.6	11.3	3.0
2004	51.9	24.5	24.5	2.9
2005	39.5	28.0	8.4	3.1
2006	28.8	25.8	1.9	1.1
2007	29.3	26.2	1.9	1.2

4) 과실류 생산량

과수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기타
2002	1,455.1	1,061.2	128.4	26.6	16.9	189.2	32.8
2003	1,401.2	1,024.1	125.9	25.0	17.1	178.0	31.1
2004	1,370.9	999.1	134.0	25.7	15.9	167.1	29.1
2005	1,376.9	1,007.7	134.7	26.1	13.4	166.5	28.5
2006	1,333.0	973.7	126.5	24.6	12.3	171.1	24.8
2007	1,260.8	981.5	72.6	17.8	4.0	149.6	35.3

과수 생산량

(단위 : M/T)

구분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기타
2002	15,184	12,811	941	276	223	827	106
2003	10,424	8,579	729	212	216	595	93
2004	13,499.8	10,483.6	1,287.7	265	198.5	1,147	127
2005	14,132.6	10,841	1,346	317.2	184	1,343.3	101.1
2006	13,732.2	10,420	1,270	299.6	168.6	1,518.6	55.4
2007	20,314.0	16,774.0	1,248.0	254.0	72.0	1,891.0	75.0

포함지역에 주로 생산되는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이 있다. 이지역의 과수재배는 1960년대에는 미미했으나 해마다 경지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로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향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요인과 과수재배가 고소득 작물로 농민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007년 현재 생산량으로 보면 사과 16,774M/T, 감 1,891M/T, 배 1,248M/T, 복숭아 254M/T, 포도 72M/T로 사과의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재배면적을 보면 2007년 사과 981.5ha, 감 149.6ha배 72.6ha, 복숭아 17.8ha, 포도 4.0ha 순으로 역시 사과의 재배면적이 다른 과수 전체의 재배면적보다 약 3.8배에 해당된다. 특히 기북, 기계 등 포항 서북부지역의 사과단지는 품질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배와 감은 2002년 각각 941M/T, 827M/T 생산량에서 2007년 1,248M/T, 1,891M/T 생산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복숭아와 포도는 2002년 각각 276M/T, 223M/T 생산량에서 2007년 254M/T, 72M/T 생산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포도의 경우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있어서 몇 년 사이에 생산량이 약 1/3로 줄어들어 지역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업기술센터

1) 설립배경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정보를 보급하여 전문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하였다. 최근 농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2) 변천과정

농촌지도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하여 출발한 사업으로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1947년 12월 15일 농사개량원이 발족되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1958년 대통령령 제1384호로 공포된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는 1961년 5월 건설부의 지역사회 개발국으로 개편되었다가 농림부로 편입되었으며 그해 10월에는 각도의 지역사회개발과가 신설됨으로써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포항은 1957년 9월 농사교도법에 의해 영일군 농사지도소가 창설·발족되었으며 포항시 영일군의 전 지역을 지도 감독하였다.

그리고 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포항시와 영일군이 분리되어 업무를 담당했다.

그 후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 농촌지도소가 통합되었으며 1998년 9월 16일에는 포항시 농촌지도소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로 개명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포항시 직속기관으로 직제는 농촌지원과에 지원기획담당, 인력육성담당, 교육훈련담당, 생활자원담당이 있고 기술보급과에는 작물환경담당, 소득작목담당, 경영분석담당, 기술개발담당이, 사회지도과에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개선계를 두고 있다.

3)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연혁

- 1957. 2. 영일군농사교도소 설치(법률 제54호 농사교도법)
- 1962. 3. 영일군 농촌지도소로 개칭
- 1964. 1. 5읍면 지소 설치(흥해, 청하, 기계, 오천, 동해)
- 1975. 4. 12읍면 지소 확대 설치
- 1976. 12. 직제 개정(소장 4급 승격, 기술담당관 5급신설)
- 1989. 4. 직제 개편 : 1담당관, 4계, 12지소 →1담당관, 12계 (지소폐지)
 - 지도계, 교육훈련계, 공보계, 청소년계, 생활개선계, 자원개발계, 식량작물계, 환경농업계, 축산계, 원예계, 잠업특작계, 농업경영계
- 1990. 1. 과 신설 (1담당관 → 3과)
 - 지도과 : 지도계, 교육훈련계, 공보계
 - 사회개발과 : 청소년계, 생활개선계, 자원개발계
 - 기술보급과 : 식량작물계, 환경농업계, 축산계, 원예계, 잠업특작계, 농업경영계
- 1992. 9. 농업인상담소 전 읍면 설치 (14읍면)
- 1995. 1. 통합 포항시농촌지도소 설치(포항시, 영일군 통합)
 - 직제 개편 : 3과, 9계, 15 상담소
 - 사회지도과 :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 기술보급과 :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계작물계, 축산계
 - 기술개발과 : 기술개발계, 환경농업계
 - 상담소 : 14읍면 및 중부(동지역) 신설

정 원 : 60명

(지도직 53, 기능직 6, 별정직 1)
- 1997. 1.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 1998. 1. 정원 : 60명(지도직 51, 기능직 8, 별정직 1)
기관명칭 변경 :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 1998. 9. 정원 : 52명(지도직 45, 기능직 6, 별정직 1) 계장명칭을 담당으로 변경
- 1999. 10. 직제 개편 : 2과, 8담당
 - 농촌지도과 : 지도기획·인력육성·농업정보·생활기술 담당
 - 기술보급과 : 식량작물·원예축산·환경농업·연구개발 담당
 정원 : 50명 (지도직 43, 기능직 6, 별정직 1)
- 2000. 6. 정원 : 45명 (지도직 40, 기능직 4, 별정직 1)
- 2002. 9. 정원 : 47명 (지도직 41, 기능직 5, 별정직 1)
- 2003. 9. 직제개정 : 과 및 담당 변경 (2과 8담당 15 상담소)
 - 농촌지도과 → 농촌지원과
 - 지도기획담당 → 지원기획담당
 - 농업정보담당 → 경영정보담당
 정원 : 48명 (지도직 41, 기능직 6, 별정직1)
- 2004. 1. 정원 : 47명 (지도직 40, 기능직 6, 별정직 1) - 포항시훈령 제141호
- 2007. 1. 직제개편
 - 농촌지원과 : 지원기획·인력육성·교육훈련·생활지원 담당
 - 기술보급과 : 작물환경·소득작목·경영분석·기술개발 담당

4) 각종 지도사업

포항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각종 지도 사업을 하고 있다.

(1) 농업기술

기술분야로는 농업과학기술, 주간농사정보, 토양검정, 농약안전사용, 영농자료실 등을 운영하며 각종 기술지도와 증산지도를 하고 있다.

(2) 농업인단체 지원

품목별 연구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조직체 운영, 행사관리를 하고 있다.

(3) 농업경영 정보 지원

농업 경영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소득자료, 농업기술지식 전파,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하고 있다.

(4) 생활기술 정보제공

떡거리 한마당, 농촌여성 생산제품 소개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양질의 우리 떡거리 제공하고 있다.

(5) 영농도우미

농업상담, 농업인 교육, 온라인 교육신청, 온라인 견학신청, 농기계 순회수리 등을 하고 있다.

5.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상호부조적인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가진 단체이다.

연혁을 보면 1952년 7월 대한농민 총연맹이 농업협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농협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도 연합회를 결성하였으나 농림부 장관의 경질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다.

그 후 1957년 3월 1일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은(農銀)의 지점은 시·군까지 두되 읍자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은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농협이 장악하도록 하고 금융조합의 재산은 농협중앙회가 인수 청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 후 “협동조합의 재편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정책에 따라 1961년 8월 15일부터 새로운 종합농협의 형태로 통합되었다.

포항의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8월 15일 농업은행지점과 농협이 통합되었으며, 그 후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포항본점과 지점으로는 송도,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오광장, 죽도, 장량, 창포지점이 있고, 사업장으로는 하나로 마트, 농산물공판장, 채소공판장, 상대창고,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위조합으로는 구룡포농협, 흥해농협, 신광농협, 청하농협, 송라농협, 기계농협, 죽장농협, 연일농협, 오천농협, 동해농협, 장기농협, 시지부가 있다.

경제 사업으로는 농산물 판매, 구매 가공사업을 하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생장물 취급, 창고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신용사업은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기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수금, 상호대출, 정책대출 등을 통해 수익사업과 금융업무를 활성화 하고 있다.

현재 조합수는 41개, 조합원수는 19,461명이고 연중 여신실적을 보면 금융자금이 1조 5백3십9억7천만 원, 정책자금 6백9십9억9천4백만원이며 수신 잔고로는 저축성예금이 1조6천7백9십4억9천6백만원, 요구불예금은 1천6백5십억8천4백만원이다.

1) 포항농협 연혁

- 1969. 12. 30 조합설립
- 1969. 12. 31 공판장(분장) 개장
- 1973. 5. 30 공판장(분장) 개장
- 1976 .10. 15 송도분소 신축 개점
- 1977. 5 .28 서부분소 신축 개점
- 1977. 12. 31 동빈참고 인수 (군농협)
- 1980. 5. 29 저운참고 신축 개장
- 1983. 2. 28 효자분소(차고) 인수 개점
- 1983. 12. 27 청림참고 신축 개장
- 1987. 2. 7 연쇄점 개점(임대)
- 1989. 4. 1 사무소 명칭변경(포항농업협동조합, 분소는 지소로 변경)
- 1989. 4. 17 남부지소 이전개점(구, 효자분소)
- 1989. 9. 1 북부지소 개점(임대)
- 1992. 2. 11 동부지소 개점 및 연쇄점 확장 개점
- 1993. 6. 21 북부지소 신축 이전
- 1994. 7. 5 장제사업소 개점(동빈참고 내)
- 1994. 9. 12 오광장지소 개점(임대)
- 1996. 6. 28 공판장지소 개점
- 2001. 11. 19 농산물공판장 이전 개점 (흥해읍 학천리 4)
- 2002. 1. 2 본소 365자동화코너 개점
- 2002. 5. 20 지사무소 명칭변경(7개 사무소) 지소⇒지점
- 2002. 12. 18 북부지점 365코너 개점
- 2004. 9. 24 본점 증축 및 개보수
- 2004 . 9. 24 남부지점 365코너 개점 및 개보수
- 2004. 12. 20 장량지점 개점(365코너포함)
- 2005. 1. 24 서부지점 신축 개점(365코너포함)
- 2005. 2. 19 농산물 집하장 건물 준공

- 2006. 7. 10 북부지점2층 문화복지센터 개강
- 2006. 11. 6 상대창고 준공
- 2007. 4. 12 장량지점 점 외 365코너 개점(환호해맞이그린빌 내)
- 2008. 9. 29 창포지점 개점
- 2009. 8. 25 주유소 개점(우현동)

6.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경북 동남부권의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고 시민들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했으며 연간 266만톤 (일평균 868톤)의 농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1) 개설목적

- 경북 동남부권역의 농산물 유통 중추기지 육성
- 농산물 유통체계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에 보호
- 상품등급에 따라 적정가격을 형성함으로써 품질서 향상에 기여
- 유통정보제공으로 시장여건 변동에 신속대응

2) 구성법인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포항청과, 능금농협, 포항농협공판장 3대 기관이 모여 이루어진 법인이다.

(1) 포항청과

포항청과는 1979년 포항청과주식회사 설립하여 청과부류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자경매 등을 통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며 출하주, 유통종사자, 소비자와 시민에게 상호 이익을 주고자 한다.

(2) 능금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포항지점 공판장은 1973년 포항시 죽도동에 처음 개설되었다가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으로써 참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매과정의 투명성과 불공정 거래 근절의 노력으로 2002년부터 전 품목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3) 포항농협공판장

포항농협공판장은 1969년 12월 포항시 북구 죽도 2동에서 개설된 과일공판장은 포항농협의 모태이기도 하고 현재 채소류 경매는 죽도시장 내에 위치한 채소공판장에서, 과일류 경매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 2동에서 농산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절 축산업

1. 축산 기본현황

1) 가축사육

가축의 사육은 인간이 농경생활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왔다.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는 농사에 커다란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식량으로도 이용하기도 하는 등 용도가 다양하면서 농가의 큰 자산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력의 이농현상과 농기계의 발달로 역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소를 비롯한 가축의 사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육류와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가축사육이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대의 가축사육은 주로 부업위주의 가축 사육으로 농가에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 기업화된 축산의 방향으로 정책이 유도 되었으나 포항지역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마필, 산양,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타조 등 여러 종의 가축사육과 양봉을 하고 있다. 마리수로는 닭이

606,819마리, 돼지는 36,013마리, 한우가 18,775마리, 젓소 1,846마리, 육우 1,129마리, 개가 6,828마리, 토끼 5,324마리 순으로 되어 있고 다른 가축의 수는 많지는 않다.

축산가구수로는 한우 가구수가 1,531호로 제일 많고 닭 가구수는 278호, 개 사육 가구수는 2,128호로 조사되어 있다.

가축사육 호수 및 마리수

축 종	전 체		남구지역		북구지역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한 우	1,531	18,775	446	5,793	1,085	12,982
육 우	51	1,129	14	93	37	1,036
젓 소	48	1,846	17	559	31	1,287
돼 지	47	36,013	19	9,428	28	26,585
닭	278	606,819	90	102,340	188	504,479
마 필	7	41	1	15	6	26
산 양	35	1,180	8	392	27	788
사슴	24	462	9	182	15	280
토끼	23	5,324	14	4,970	9	354
개	2,128	6,828	771	2,515	1,357	4,313
오리	33	1,041	10	183	23	858
칠면조	1	2	1	2	0	0
거위	2	22	1	2	1	20
메추리	1	10,000	0	0	1	10,000
꿀벌	398	16,389	95	4,912	303	11,477
타조	1	5	0	0	1	5

2. 포항축산협동조합

1) 설립 및 변천과정

포항축산협동조합은 1965년 9월 27일 발족하여 동년 10월 25일에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 가입했고 1968년 1월 1일 영일군 농협으로부터 환원사업 특별회계를 인수받게 운영되어 오다가 1981년에 이르러서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포항축산협동조합으로 개편되는 동시에 축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했다.

같은 해 8월 31일에는 포항시립도축장 위탁관리업무를 개시하면서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83년 9월 31일에는 상호금융 업무를 개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 1989년 본점이전 및 해도동 지점 개설
- 1992년 상도동 지점 개설
- 1997년 기계가축시장사업 확장, 개설
- 2005년 식육유통센터 haccp 인증
- 2006년 창포1지점 및 축산물 판매장 개점
- 2007년 영일촌 한우프라자 및 판매장 개점
- 2008년 전국업적평가 최우수조합 선정

2) 중요사업

축산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축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요사업으로는 신용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지도, 보급 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하며, 또한 조합의 구매사업, 판매사업, 가축시장사업, 가축개량사업, 운송사업 등 다양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창출과 조합원의 확대 및 출자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제3절 임업

1. 산림정책의 변화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는 경제적 자원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에 숲이 주는 효용은 한 도시의 가치를 결정짓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66%가 산림지역으로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와 빈곤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산림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산림보호와 조림을 위해 1952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하고 국유림 5개년 계획, 1957년 제2차 5개년계획을 세우고 조림사업을 본격화하고 1961년에는 부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여 산림보호에 박차를 가했다.

영일군은 1960년대 경상북도의 임업 종합개발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사방사업이 이루어졌고, 포항의 영일군은 야계사방으로 선산·영주군을 중심으로 61.9km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해안사방으로 영일·영덕·울진군 등의 3개 지구에서 80ha에 달하는 사업의 완공을 보았다. 1967년 이후에는 조림사업이 후퇴하는 대신 산림의 판매관리와 사후관리에 치중하면서 산림을 소득원으로 보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는 산림보호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포항에서는 비학산지구가 설정되는 등 산림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 후 국유림 경영의 개선책으로 국유림 확대구역을 설정하여 민유림의 국유화 노력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임업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졌고 1995년을 기점으로 “조림사업 10개년 계획”, “사방사업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산림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 소유별 임야면적

1) 국유림

포항의 국유림은 9,271ha로 전체 임야면적 75,668ha의 약12%이다. 그 변화를 보면 2004년 9,144ha, 2005년 9,166ha, 2006년 9,190ha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유림 9,271ha 중 산림청 소관은 7,485ha이고 다른 부처 소관은 1,786ha로 이루어져 있다.

2) 공유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으로 조성한 것인데 포항시의 경우 공유림 10,404ha 중 도유림 2,007ha, 사유림 8,397ha로 시가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면적은 2004년 8,398ha에서 2006년 8,404ha로 약간 증가했다가 2007년 현재 8,397ha로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3) 사유림

사유림은 개인, 회사, 법인 등의 소유로 일반 농가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소유가 많은 편이다. 사유림은 55,993ha로 포항지역 전체 임야 면적의 약 7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유림의 변화는 2004년 56,269ha, 2005년 56,165ha, 2006년 56,134ha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 별	합 계	국유림	소관		공유림	사유림		사유림
			산림청	타부처		도유림	사유림	
2004	75,818	9,144	7,366	1,778	10,405	2,007	8,398	56,269
2005	75,736	9,166	7,375	1,791	10,405	2,007	8,398	56,165
2006	75,735	9,190	7,400	1,790	10,411	2,007	8,404	56,134
2007	75,668	9,271	7,485	1,786	10,404	2,007	8,397	55,993

3. 조림 현황

1) 임상별 산림면적

포항의 임상별 산림면적은 2005년 현재 75,736ha이나 2003년 75,783ha 이후 조금씩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입목지 74,910ha 중 침엽수림이 35,406ha로 그 비중이 약 47%를 활엽수가 15,481ha로 약 21%, 혼효림은 24,017ha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포항지역은 침엽수림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혼효림도 32%나 되어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ha)

연별	총계	입 목 지					무 입 목 지				
		소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소계	미입목지	황폐지	개간지	제지
2001	75,488	74,983	35,220	15,500	24,257	6	505	209	11	-	285
2002	75,780	75,211	35,293	15,571	24,341	6	569	163	11	-	395
2003	75,783	75,236	35,372	15,521	24,337	6	547	122	12	-	413
2004	75,758	74,944	35,395	15,496	24,047	6	814	226	12	-	576
2005	75,736	74,910	35,406	15,481	24,017	6	826	363	6	-	457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³)

연 별	합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 림
2001	4,467,836	2,056,043	997,144	1,414,649	-
2002	4,681,088	2,166,228	1,027,797	1,487,063	-
2003	4,871,812	2,263,990	1,055,220	1,552,602	-
2004	5,074,833	2,365,454	1,092,633	1,616,746	-
2005	5,289,976	2,471,389	1,132,800	1,685,787	-

2) 임상별 임목축적

임상별 임목축적은 2001년 4,467,836m³에서 2002년 4,681,088m³, 2004년 5,074,833m³, 2005년 5,289,976m³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2005년 2,471,389m³로 전체 임목축적량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혼효림이 1,685,787m³로 약 32%, 활엽수가 1,132,800m³로 약 21% 순으로 침엽수의 임목축적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4. 조 림

조림현황을 보면 면적으로는 2004년 101ha, 2005년 109ha, 2006년 140ha로 매년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18ha로 포항 전 지역에 조림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목한 본수는 경제수가 3십만3천 수, 큰 나무가 1십4만3천 수로 두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실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2007년 큰 나무 조림 면적은 114ha로 2006년 37ha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 현황

(2008. 12. 31 현재, 단위 : ha,천본)

연별	합 계		경 제 수		유 실 수		큰 나 무		조경수		기 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2004	101.0	201.6	52.0	152.0	-	-	49.0	49.6	-	-	-	-
2005	109.0	220.0	51.0	115.0	-	-	53.0	80.0	-	-	5.0	25.0
2006	140.0	205.0	102.0	147.0	-	-	37.0	55.0	-	-	1.0	3.0
2007	218.0	461.0	104.0	303.0	-	-	114.0	143.0	-	-	30.0	15.0
2008	-	-	-	-	-	-	-	-	-	-	-	-

5.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산림 및 수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도로주변에 역점을 두고 사방사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의 사방사업은 2001년 면적 3ha에 식재본수 1만2천본 공사비 4억5천8백3십7만7천으로 미약했으나 2005년에는 12ha 면적에 2만 식재본수, 공사비 총 13억3천7백2십7만2천으로 많이 증가하여 사방사업을 했다. 이중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이 12ha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재본수는 2만수 전부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방법은 3개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은 야계사방보다 주로 산지 및 해안지방 위주로 사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절토지, 성토지에 대한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 포항시 산림조합

1) 설립배경 및 변천과정

산림조합은 조선시대에는 송계(松契), 순산계(巡山契), 금송계(禁松契), 산림계(山林契) 등의 명칭으로 붙여진 경제이익단체에서 유래한다. 현재는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으로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보호와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됨에 따라 1962년 5월에 대한산림조합연합회가 정식 발족하였고, 그 후 1980년 산림법에서 산림조합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산림조합은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조직이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중앙회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업무를 체계화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기술지도와 협동사업에 주력하면서 발전해 왔다.

영일군 산림조합은 1962년 설립인가를 받아 발족하여 1995년 포항시와 통합하면서 포항 임업협동조합으로 개명되었다가 2000년 포항시 산림조합 개명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은 산주, 산림경영자, 산림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의 주요 업무는 산림에 대한 기술지도, 임산물유통, 산림개발지원 조성, 자금융자, 신용업무, 구매·판매 등의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2) 연혁

- 1962년 영일군 산림조합으로 설립인가
- 1993년 영일군 임업협동조합 개명(임업협동조합법 인가)
- 1994년 신용사업 시작
- 1995년 포항 임업협동조합 개명(도농통합)
- 1997년 청사이전 및 임산물직매장 개장
- 2000년 포항시 산림조합으로 개명

3) 중요사업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조림, 숲 가꾸기, 대리경영사업과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공사업, 사방사업, 휴양림 조성 등을 직접 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수목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쉽게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들의 부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송이공판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 업무를 통하여 예금, 적금과 공과금 수납, 일반 및 정책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1) 산림자원 조성사업

영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사업 합리화를 위하여 산림기술자를 통한 정확한 산림조사 및 산주 의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계획 작성과 시업지도

(2) 조림사업

- ① 영세한 산주에게 위탁조림 시행 및 각종시책 조림사업 시행
- ② 숲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및 개량사업, 간벌 사업 등 산주위탁 및 각종 시책 육림사업 시행
- ③ 산림보호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소나무깍지벌레 등 각종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및 관련자료 제공

(3) 대리경영사업

자기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방치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하여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의 일체를 대행 실행하여 방치된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

(4) 임업경영 기반구축 사업

- ① 임도시설사업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경영기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임도시공 및 유지보수사업 시행.
- ② 사방사업
황폐지 또는 황폐가 예상되는 산지에 산림식생을 복구 보전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
- ③ 휴양림 조성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
- ④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설계 및 시공.

(5) 임업기술 지도사업

산림정책 및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임업기술 보급을 통한 산주의 소득 창출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유도.

참고문헌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대구시, 197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포항시, <포항시농촌지도소 사업계획>, 1986~1987.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포항시, 《통계연보》, 2001~2009.
포항시, 《포항통계연보》, 2008.
포항시도시녹지과, <조림현황>, 포항시, 2009.
포항시농축산과, 《포항시 통계연보》, 포항시, 2009.